

# 피트, 졸리 이후 샤를리즈 테론과 4번째 열애설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57)와 샤를리즈 테론(45)의 열애설이 불거졌다.



함께 '로마' 상영회에 참석한 배우 블랑카 블랑코(36)의 인스타그램에서도 확인된다. 블랑코는 피트, 테론과 각각 촬영한 셀카를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영국 매체 더선은 20일 "피트와 테론이 손 펜(60) 감독의 소개로 교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펜 감독과 테론은 2014년 약혼까지 했다가 2015년 결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면, 펜 감독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영화계 동료에게 소개한 셈이 된다. 테론과 피트는 최근 시계 브랜드 브라이틀링의 광고 모델로 함께 활동했다.

더선은 "피트가 호텔에서 옷을 갈아입고 바에 미리 도착한 테론과 합석했다. 피트는 물을, 테론은 보드카를 마셨다. 두 배우는 누가 봐도 연인 사이처럼 밀착했고 윙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두 배우가 오랜 세월을 친구로 지냈고, 한 달가량 전부터 교제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더선은 "피트와 테론이 지난 12일 각각의 영화 사회를 마치고 로스앤젤레스의 사토 마몬트 호텔에서 만났다."고 전했다. 피트는 자신이 제작한 영화 '이프 빌 스트리트 쿼드 토크'의 상영회를 개인 주택에서 가진 뒤 테론이 있는 사토 마몬트 호텔로 이동했다. 테론은 이 호텔에서 열린 열린 영화 '로마' 시사회에 특별 게스트로 참석했다.

피트는 2016년 9월 앤젤리나 졸리와 헤어졌다. 졸리는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다. 양육권은 지난해 12월 합의됐지만, 이혼 소송은 여전히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피트는 졸리와 헤어진 뒤 벌써 네 번째 열애설에 휩싸였다. 앞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 네리 옥스만, 배우 시에나 밀러, 보석 디자이너 셋 하리 시크와 교제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트는 모두 부인했다.

두 배우가 당시 같은 호텔에 있었던 정황은 테론과

# 손예진 "현빈과 열애 사실 무근"

배우 손예진과 현빈이 열애중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손예진 측이 이를 적극 부인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빈과 손예진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미국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엔 두 사람이 모자를 눌러 쓰고 마트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이 담겼다. 남성이 카트를 끌고 여성이 진열대에 있는 상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자 손예진의 소속사 관계자는 "손예진씨가 미국에 사는 친한 언니가 있다고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번에도 그분을 만나러 갔다."며 "현빈씨도 여행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즉흥적으로 약속을 잡게 된 것"이라고 열애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또 "사진에 찍힌 순간에만 둘이 있었을 뿐 다른 코너에 지인 일행도 있었다."면서 "손예진씨의 귀국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서 말씀드릴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진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두 사람이 '마트 데이트' 했다며 열애설의 증거로 들었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엔 "현빈과 손예진이 부모님과 함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는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다. 더구나 이미 두 사람의 '동반 여행설' 이 나왔던 터라 더욱 화제가 됐다.

현빈과의 열애설이 악열흘 간격으로 2차례나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했고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는데도 관심이 끊이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제대 앞둔 임시완 복귀작 결정



오는 3월 제대하는 배우 임시완의 복귀작이 결정됐다.

임시완은 제대 후 첫 작품으로 OCN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에 출연하기로 했다.

'타인은 지옥이다'는 상경한 시골 청년이 고시원에 살면서 겪게 되는 기묘한 이야기를 그린다. 김용기 작가의 동명의 스킬러 웹툰을 바탕으로 했다. 웹툰은 누적 조회 수 8억 뷰에 달하는 인기작으로 일요 웹툰 39주 연속 1위를 기록한 인기작이다.

임시완은 2010년 제국의 아이들로 데뷔했다. 2012년 mbc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 오디션 보고 캐스팅이 확정되면서 연기를 시작했으며 tvN 드라마 '미생'을 통해 배우로 자리잡았다. 이후 영화 '오빠 생각' (2016), '원라인' (2017),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2017)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한편 2017년 7월 입대한 임시완은 오는 3월 27일 전역할 예정이다.

1248호 숫자퍼즐 정답

9	7	1	6	8	2	4	5	3
8	2	3	5	7	4	1	9	6
6	4	5	1	3	9	8	2	7
1	6	4	8	2	7	5	3	9
2	3	8	9	4	5	6	7	1
5	9	7	3	6	1	2	8	4
3	8	2	7	1	6	9	4	5
4	1	9	2	5	3	7	6	8
7	5	6	4	9	8	3	1	2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 남편 병수발에 지친 아내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오래 전의 어느 날 60대의 부인과 상담을 하게 되었다. 필자가 먼저 남편의 사주를 보면서 건넌 이야기는 "남편께서는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기술직 같은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주가 되지만 현재 운(運)의 흐름을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입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부인이 대뜸 필자에게 물어보는 말이 "우리 남편이 언제 죽나요?"라고 묻는다. 필자가 황당한 마음에 다시 물어본 것은 "아니 남편분이 언제 죽을지 물어본다는 것은 현재 건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라고 말을 하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남편이 몇 년 전에 크게 다쳐서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가 되어서 침대에 누워만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병수발도 하루

이틀이지 정말로 힘들다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심한 잔소리만 해대고 최근에는 의처증 증세까지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필자가 건넌 이야기는 "부인의 사주에는 그래도 남편의 모양새가 번듯하게 있지만 부인께서 지금 지나고 있는 운(運)의 흐름이 아내로서 받아야 하는 원만한 남편의 덕을 입지 못하는 운(運)의 흐름입니다. 그러니 지금 부인께서 힘들고 고달픈 심정이야 이해하지만 남편께서 지금 몸이 편찮으신 것은 부인께서 지나고 있는 운(運)의 흐름 탓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인 하는 말이 "나도 알아요. 예전에 내가 젊었을 때에 어디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훗날 서방 병수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정말 힘이 듭니다."라고 하소연을 한다. 필자가 그 부인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아무리 고상한 인격이나 도덕심을 지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심한 대자연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고난과 역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 사주명리(四柱命理) 수강생 모집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